

남녀 개인의 정서 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에서 공동 대처 전략의 매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설 경 옥[†] 백 상 은 원 수 경 황 여 주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이성 관계에서 개인의 정서조절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갈등상황 시 남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내는 공동대처(dyadic coping)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 298쌍(총 596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 적극적 문제해결시도의 긍정적 공동대처 전략,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과 회피의 부정적 공동대처 전략, 그리고 관계만족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고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이용해 가설을 검증했다. 그 결과 첫째 남녀 모두 자신의 적극적 문제해결시도는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과 관계만족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남녀 모두 자신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은 자신의 정서조절과 관계만족을 부분 매개하는 동시에 3 모형 중 유일하게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은 남성의 정서조절과 남성의 관계만족을, 남성의 정서조절과 여성의 관계만족을 부분 매개했으며 여성의 정서조절과 남성의 관계만족을 부분 매개했다.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자신의 회피는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과 관계만족을 부분 매개하였으나 상대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의 의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에 포함했다.

주요어 : 정서조절, 공동대처, 이성 관계 만족, APIM

* 본 연구의 결과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lationship Research 2015 mini-conference, Amsterdam, Netherlands에서 구두발표 되었음.

† 교신저자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8, E-mail : koseol@ewha.ac.kr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대처하는 전략은 개인의 신체 및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Folkman & Moskowitz, 2004) 개인적인 수준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Herzberg, 2013; Lazarus & Folkman, 1984). 그러나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에서 오고 그 중에서도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은 개인의 신체 및 심리적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Randall & Bodenmann, 2009).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성 관계에서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남녀의 상호간 공동대처(dyadic coping) 전략이다. 공동대처란 연인이나 부부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로의 시도와 연인이나 배우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정의된다(Bodenmann, 2000). 본 연구는 이성 관계에서 남녀 개인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긍정적이고 부정적 공동대처가 이들의 관계 만족에 주는 영향을 이성 관계의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해 검증했다.

어떤 관계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이성 관계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이성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자체보다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혹은 얼마나 만족스럽게 갈등을 해결했는지의 여부가 이성 관계 만족을 예측한다(Straus, 1979). 이성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등 상황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서로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갈등 상황에서의 공동대처이다. 공동

대처는 스트레스 및 갈등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갈등 대처 전략과 유사하지만, 부부 및 연인 관계 같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대처는 긍정적 공동대처와 부정적 공동대처로 나뉘는데 긍정적 공동대처에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공감적인 이해를 포함한 지지적 공동대처,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협력적 공동대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과업의 새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동대처가 있다. 부정적 공동대처에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의사소통하며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하거나 상대의 스트레스를 비아냥거리거나 경미한 것으로 여기는 적대적인 공동대처, 억지로 마지못해 지지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협력이 불필요할 것이라는 태도로 지지를 제공하는 양면적인 공동대처,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감 없이 지지를 제공하는 위선적인 형태의 피상적인 공동대처 등이 있다(Bodenmann, 2005). 교제 기간이 오래된 연인과 부부를 대상으로 2년 동안 공동대처와 관계의 질에 대해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더 지지적이고 협력적이며 덜 부정적인 공동대처를 한다고 보고한 남녀의 관계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Bodenmann, Pihet, & Kayser, 2006).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현주와 유계숙(2013)이 공동대처가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미혼의 이성 관계가 아닌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부의 쌍자료를 남편과 부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대처 방식에 대한 평균 점수 혹은 차이 점수로 계산함으로써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부인의 공동대처가 자신 및 상대방의 결혼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살펴

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성 관계를 대상으로 각 남녀의 공동대처가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만족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했다.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서로의 대처 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서조절 능력이다. 정서조절을 잘 하는 개인은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써 상대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김초록, 신희천, 2011; Zambianchi & Bitti, 2014)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usbult, Martz, & Agnew, 1998). 상호 의존성과 교류의 빈도가 높은 이성 관계에서 남녀는 강렬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Furman & Shaffer, 2003) 개인의 안녕과 만족스러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정서조절 능력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성 관계에서의 정서조절은 관계 만족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Fitness, 2001). 효율적인 정서조절은 이성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과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교류하도록 돕는다(Lopes et al., 2011).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은 연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연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여 만족스러운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hiota, Campos, Keltner, & Hertenstein, 2004). 또한, 정서적인 반응과 표현을 재평가하고 알맞게 조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서를 억누르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더 많이 했고 관계 안에서 더 잘 기능했으며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oss & John, 2003). 반대로 과민하거나 불안정하고 혹은 감정에 쉽

게 압도되거나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회피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것과 같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개인은 낮은 관계 만족도와 빈번한 관계 문제를 호소했다(Paul & Sherilyn, 2003; Wei, Vogel, Ku, & Zakalik, 2005). Papp와 Witt(2010)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서 개인 수준의 정서조절 전략과 긍정 그리고 부정적 공동대처전략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의 긍정적 공동대처 전략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 자신의 부정적 공동대처 전략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또한 Papp와 Witt (2010)는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동대처 전략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어떠한 변인이 관계 만족을 더 잘 설명하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긍정적 공동대처와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이 자신의 관계 만족을 가장 잘 예측했으며 이때 상대방 효과는 여성에게만 나타나 여성의 긍정적 공동대처 전략은 남성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에 비해 남성의 관계 만족을 더 강하게 정적으로 예측했다. Papp와 Witt(2010)의 연구는 이성 관계 만족에서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동대처 전략의 설명력에 관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모두 고려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서 연인 간 갈등 해결에 있어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과 함께 공동대처 전략의 중요성을 함께 탐색했으나 개인의 정서조절 전략과 공동대처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이성 관계 만족을 설명하는지 탐색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최근 독일에서 240명의 동거 혹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대처 전략과 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공동대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Herzberg, 2013). 그의 연구에서 개인적 대처 전략은 과업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로 나뉘었으며 공동대

처 역시 연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과업 중심 공동대처와 연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겪고 있는 감정에 초점을 둔 정서 중심 공동대처 방략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남성의 개인적 정서 중심 대처는 여성의 정서 중심 공동대처를 부분 매개로 여성의 관계 만족과 관련이 있는 반면, 과업 중심 공동대처에 대한 매개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Herzberg(2013)의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과 매우 유사하나 그 연구 대상이 독일의 동거 및 기혼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동거나 기혼 부부는 미혼의 이성 관계와 달리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된 관계로써 관계 안정성이 보다 높아 이들의 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미혼의 이성 관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Russell, Baker, & McNulty, 2013). 또한 Herzberg(2013)가 측정한 개인의 정서 중심 대처는 정서조절과 구별되는 개념이다(Compas et al., 2014). 정서적 대처를 포함한 대처 능력은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의미하지만 정서조절은 스트레스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나타난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정서 중심 대처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자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Petrides & Furnham, 2003). 이에 본 연구는 미혼의 이성 관계를 대상으로 개인의 정서조절과 관계 만족의 관계를 공동대처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때, 정서조절과 관계 만족, 정서조절과 공동대처 그리고 공동대처와 관계 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정서조절이 관계 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동시에 공동대처가 부분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공동대처 방략을 적극적인 문제해결시도의 긍정적 공동

대처와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그리고 회피의 부정적 공동대처로 나누어 총 3개의 모형을 검증했다. 이성 관계에서의 공동대처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남녀의 상호작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자신과 상대방의 공동대처 방략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며, 이는 또한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적용해 검증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성보다 관계의 질을 더 중요시 하는 여성은(Acitelli, Rogers, & Knee, 1999) 더 민감하게 갈등을 지각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Thompson & Walker, 1989) 갈등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공동대처 방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mres, Janicki, & Helgeson, 2002). 또한 긍정적인 공동대처는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과 더 큰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1999). 이에 반해 남성은 관계에서 나타난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고(Berko, Rosenfeld, & Samovar, 1997; Dominian, 1995), 남편의 갈등 회피와 철회는 역기능적인 결혼과 관련이 깊다(Gottman & Krokoff, 1989;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이러한 성차에 대해 Cheng(2010)은 여성은 갈등 상황에서의 문제를 더 관계 지향적으로 함께 해결하도록 사회화되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성과의 갈등 상황에서 타협과 긍정적인 표현 방식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성취나 과업 중심으로 사회화 된 남성은 이성과의 갈등 상황에서 회피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처와 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했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성 관계 만족에 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시도의 긍정적 공동대처와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의 부정적 공동대처에서 여성의 자기 효과는 물론 상대방 효과도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으며 반대로 남성은 여성보다 부정적 대처 중 하나인 회피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남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를 긍정적 공동대처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부분 매개할 것이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여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가 남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 남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를 부정적 공동대처 중 부정적 정서 및 행동 표출이 부분 매개할 것이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여성의 부정적 정서 및 행동 표출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가 남성의 부정적 정서 및 행동 표출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 남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를 부정적 공동대처 중 회피가 부분 매개할 것이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성 회피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가 여성 회피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경남 지역 20~30대의 이성 교제중인 미혼 남녀 340쌍이다. 영화관에서 설문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전자 메일로 지원한 82쌍(황여주, 2013)과 서울 소재 대학의 심리학 관련 강의 및 온/오프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신청한 258쌍(백상은, 설경옥, 2015)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2부와 남성 혹은 여성만 응답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298쌍(총 59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남녀 전체 평균 나이는 23.55($SD=3.49$), 남성의 평균 나이는 24.41($SD=3.68$), 여성의 평균 나이는 22.68($SD=3.05$)세였고 평균 교제 기간은 16.14개월($SD=16.76$)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322명(54.0%), 사무직은 30명(5.0%), 전문직은 24명(4.0%), 서비스 및 판매는 10명(1.7%), 노무직, 기능직, 자영 상공업은 모두 1명(.2%), 기타는 19명(3.2%), 무직은 17명(2.9%), 무응답은 171명(28.7%)이었다. 연구는 이성 교제 여부에 대한 확인과 연구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되었다. 남녀 모두 설문을 완료한 커플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선물 혹은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했다.

측정도구

정서조절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을 조용래(2007)가 한국판정서조절곤란 척도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

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했다. 충동통제곤란(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예: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과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의 6개의 하위 요인,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했다. 대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DERS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조용래, 2007).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역채점한 후 각 하위 척도별로 합산한 점수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남녀 전체의 정서조절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충동 통제 .89,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81, 정서에 대한 수용성 .89, 정서적 명료성 .75,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79, 목표 지향 행동 .86이었다. 남성의 정서조절 내적합치도는 충동 통제 .88,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81, 정서에 대한 수용성 .90, 정서적 명료성 .76,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80, 목표 지향 행동 .87이었다. 여성의 정서조절 내적합치도는 충동 통제 .89,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81, 정서에 대한 수용성 .89, 정서적 명료성 .73,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78, 목표 지향 행동 .84였다.

공동대처 전략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대처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Arellano와 Markman(1995)가 개발한 109 문항의 MADS(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를 김나리(2002)가 한글로 번안 및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5개의 하위요인(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대처 영역과 부정적 대처 영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 영역이 사용되었다. 긍정적 공동대처 전략인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6 문항(예: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다.”)으로 측정했다. 부정적 공동대처 전략은 갈등 시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지를 측정하는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6 문항(예: “이성 친구에게 흥분해서 큰 소리를 지른다.”)과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려는 행동을 측정하는 회피 6 문항(예: “충동을 피하기 위해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으로 각각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공동대처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남녀 전체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69,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88, 회피 .70이었으며 남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67,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89, 회피 .73이었고, 여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70,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86, 회피 .68이었다.

이성 관계 만족

이성 관계 만족은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 척도를 이경성과 한덕웅

(2005)이 결혼 전 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했다.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9 문항(예: “이성친구와 함께 하는 동안은 행복하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척도상에 표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제작을 통해 관계 만족을 세 꾸러미로 구성했다. 교제 중인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성과 한덕웅(2005)의 연구에서 관계 만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91, 남성 .91, 여성 .90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관계 만족 꾸러미 1은 .77, 꾸러미 2는 .75, 꾸러미 3은 .69, 여성의 관계 만족 꾸러미 1은 .72, 꾸러미 2는 .72, 꾸러미 3은 .7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9.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했다. 첫째, 주요 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긍정적 공동대처와 부정적 공동대처가 정서조절과 관계 만족 사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했다. 우선,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하위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 만족은 남녀 각각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했다. 이후 2단계 구조 모형 분석 방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 모형을 검증한 후 각 구조 모형을 검증했다. 각 구조 모형은 정서조절, 공동대처, 관계만족의

3개 변인을 남녀로 구분한 총 6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APIM의 기본 가정에 따라 남녀 외생변인 그리고 매개변인을 포함한 내생변인의 오차 간 상관을 설정했다(Ledermann, Macho, & Kenny, 2011). 또한, 교제 기간이 변인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Lopez & Rice, 2006) 교제 기간을 공변인으로 선택하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 만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고 구조 모형을 검증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값 외에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했다.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그 값은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했다(홍세희, 2000). RMSEA는 절대 적합도 지수로 .06 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08 이하이면 보통의 적당한 적합도로 .10 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로 판정했다(홍세희, 2000). 다음으로,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했다(Shrout & Bolger, 2002). 부트스트랩 절차는 모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98$)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했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관계 만족에 대한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그리고 회피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에서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등가제약을 실시했다.

결 과

상관 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상성 확인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했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했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 분석 결과, 대체로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남성의 정서조절은 남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남성의 관계 만족, 여성의 정서조절 그리고 여성의 관계 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남성과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과 남성의 회피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는 남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그리고 회피와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남성의 관계 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남성의 회피,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그리고 회피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남성의 관계 만족, 여성의 정서조절 그리고 여성의 관계 만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회피는 남성의 관계만족과 여성의 정서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관계 만족은 여성의 정서조절과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그리고 여성의 관계 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그리고 회피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여성의

표 1. 상관 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1									
2	.19**	1								
3	-.44**	-.40**	1							
4	-.24**	-.33**	.32**	1						
5	.34**	.36**	-.46**	-.33**	1					
6	.20**	.03	-.16**	-.14*	.33**	1				
7	-.01	.08	-.11	-.10	.16**	.33**	1			
8	-.23**	-.11	.41**	.27**	-.39**	-.40**	-.39**	1		
9	-.03	.04	.14*	.05	-.14*	-.24**	-.34**	.17**	1	
10	.19**	.10	-.26**	-.08	.52**	.30**	.43**	-.35**	-.30**	1
<i>M</i>	94.24	23.29	13.61	10.90	46.51	89.35	22.24	13.05	13.80	44.74
<i>SD</i>	15.50	3.32	4.21	4.55	7.23	15.79	3.23	3.81	4.92	7.61

주. * $p < .05$, ** $p < .01$. 1 남 정서조절, 2 남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3 남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4 남 회피, 5 남 관계만족, 6 여 정서조절, 7 여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8 여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9 여 회피, 10 여 관계만족

정서조절은 여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및 관계 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그리고 회피와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여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는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그리고 회피와 부적의 상관을, 여성의 관계 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회피와 정적 상관을 여성의 관계 만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여성의 회피는 여성의 관계 만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 모형 검증

각 매개 모형 검증에 앞서 2단계 구조 모형 분석 방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의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측정변인의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의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0, N=298)=338.334$, CFI=.925 TLI=.894, RMSEA=.078(90% 신뢰구간=.068~.088).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중에서 정서조절의 하위 요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남성은 .24, 여성은 .28로 매우 작아 제외했다. 남녀의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을 제외한 최종 측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90, N=298)=199.402$, CFI=.961, TLI=.941, RMSEA=.064(90% 신뢰구간=.052~.076)로 나타났다. 최종 측정 모형에서 남성의 정서조절은 .63~.86($p<.001$), 남성의 관계 만족은 .86~.94($p<.001$), 여성의 정서조절은 .60~.78($p<.001$), 여성의 관계 만족

은 .87~.96($p<.001$)으로 모두 유의했으며, 각각의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를 사용했다.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대처 모형

구조 모형 검증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관계 만족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 는 270.133, 자유도(df)는 130, CFI는 .953, TLI는 .931, RMSEA는 .06(90% 신뢰구간=.05~.07)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남성 관계 만족의 Adj- R^2 은 .34, 여성 관계 만족의 Adj- R^2 은 .28로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를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매개하는 본 모형은 남성 관계 만족 변량의 34.21%, 여성 관계 만족 변량의 28.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효과 검증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98$)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했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의 검증 결과 중 유의한 결과만 표 2에 제시했다. 검증 결과, 남성의 정서조절과 남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남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5로 $p<.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여성의 정서조절과 여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여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19로 $p<.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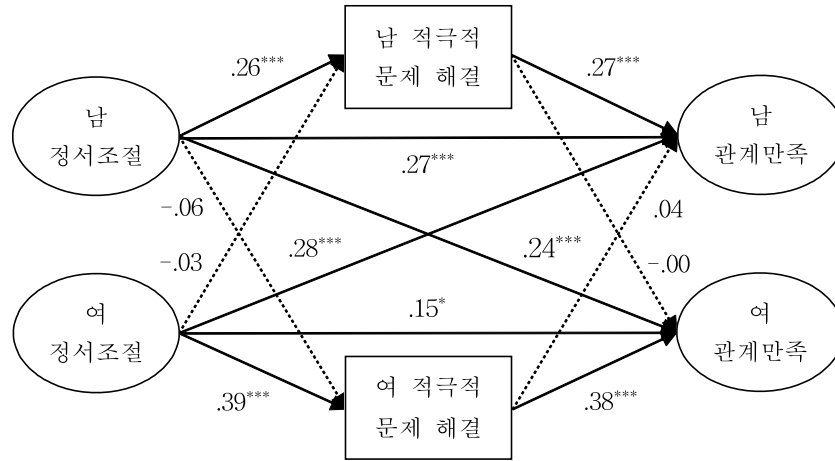


그림 1.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구조 모형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표 2.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모형의 간접 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신뢰구간)
남 정서조절	→ 남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 남 관계만족	.05(.02~.09)***
여 정서조절	→ 여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 여 관계만족	.19(.11~.3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에 제시된 간접효과는 비표준화된 수치임.

결과적으로,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모형에서는 자기 효과에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고 상대방 효과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남성과 여성에 따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실시했다. (1) 남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2)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자기효과와 상

대방효과 비교, (3)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성과 여성의 자기효과 비교, (4)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성과 여성의 상대방효과 비교. 등가제약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첫째, 남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자기효과($\beta = .27$)와 상대방효과($\beta = .04$)는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관계 만족에는 여성보다 남성 자신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자기효과($\beta = .38$)와 상대방효과($\beta = -.00$)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표 3.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기본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χ^2 차이 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 검증
기본 모형	270.133	130	.953	.931	.06	
등가제약 1	278.298	131	.950	.928	.062	$\chi^2(1)=8.165, p<.05$
등가제약 2	290.638	131	.946	.922	.064	$\chi^2(1)=20.505, p<.01$
등가제약 3	271.156	131	.953	.931	.06	$\chi^2(1)=1.023, p>.05$
등가제약 4	270.401	131	.953	.932	.06	$\chi^2(1)=0.268, p>.05$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의 관계 만족에도 남성보다 여성 자신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각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대처 모형

구조 모형 검증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정

서조절이 관계 만족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 는 295.464 자유도(df)는 130, CFI는 .946, TLI는 .921, RMSEA는 .065(90% 신뢰구간=.056~.075)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남성 관계 만족의 Adj- R^2 은 .32, 여성 관계 만족의 Adj- R^2 은 .19로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매개하는 본 모형은 남성 관계 만족 변량의 31.58%, 여성 관계 만족 변량의 19.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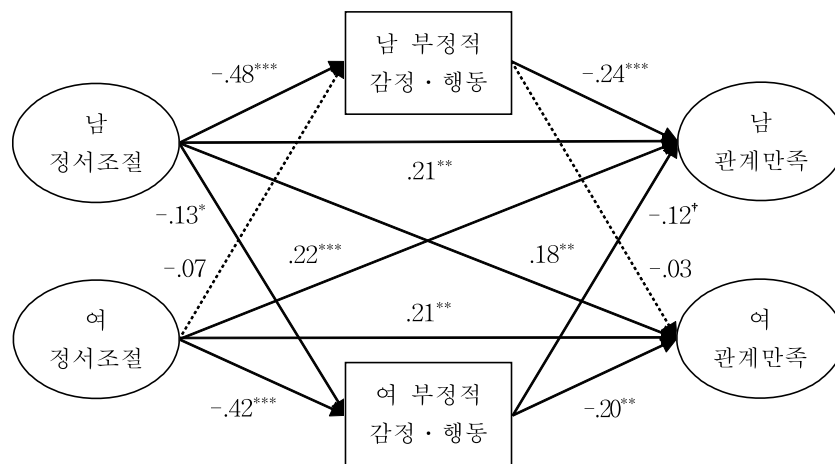


그림 2.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구조 모형

주. † $p=.06$, * $p<.05$, ** $p<.01$, ***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타났다.

간접 효과 검증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98)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했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의 검증 결과 중 유의한 결과만 표 4에 제시했다. 남성의 정서조절과 남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남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9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정서조절과 여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11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모형에서는 남녀의 자기 효과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모형에서는 자기 효과뿐만 아니라 상대방 효과에서도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남성의 정서조절과 남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1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정

서조절과 여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2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서조절과 남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8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했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남성과 여성에 따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실시했다. (1) 남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2)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3)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성과 여성의 자기효과 비교, (4)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성과 여성의 상대방효과 비교. 등가제약 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모든 비교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등가제약 결과를 표 5에 제시했다.

표 4.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모형의 간접 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신뢰구간)
남 정서조절	→ 남 부정적 감정 · 행동 표출 → 남 관계만족	.09(.04~.15)**
	→ 여 부정적 감정 · 행동 표출 → 남 관계만족	.01(.00~.04)*
	→ 여 부정적 감정 · 행동 표출 → 여 관계만족	.02(.00~.05)*
여 정서조절	→ 여 부정적 감정 · 행동 표출 → 여 관계만족	.11(.04~.22)**
	→ 여 부정적 감정 · 행동 표출 → 남 관계만족	.08(.01~.16)*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에 제시된 간접효과는 비표준화된 수치임.

표 5.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기본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χ^2 차이 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 검증
기본 모형	295.464	130	.946	.921	.065	
등가제약 1	297.064	131	.946	.921	.065	$\chi^2(1)=1.6, p>.05$
등가제약 2	297.405	131	.945	.921	.065	$\chi^2(1)=1.941, p>.05$
등가제약 3	296.029	131	.946	.921	.065	$\chi^2(1)=0.565, p>.05$
등가제약 4	296.258	131	.946	.921	.065	$\chi^2(1)=0.794, p>.05$

회피 대처 모형

구조 모형 검증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관계 만족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회피가 매개하는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 는 275.692, 자유도(df)는 130, CFI는 .95, TLI는 .926, RMSEA는 .061(90% 신뢰구간=.051~.071)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남성 관계 만족의 Adj- R^2 은 .31, 여성 관계 만족의 Adj- R^2 은 .22로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의 관계를 회피가 매개하는 모형은 남성 관계 만족 변량의 31.17%, 여성 관계 만족 변량의 21.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효과 검증

회피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98)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했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의 검증 결과 중 유의한 결과만 표 6에 제시했다. 남성의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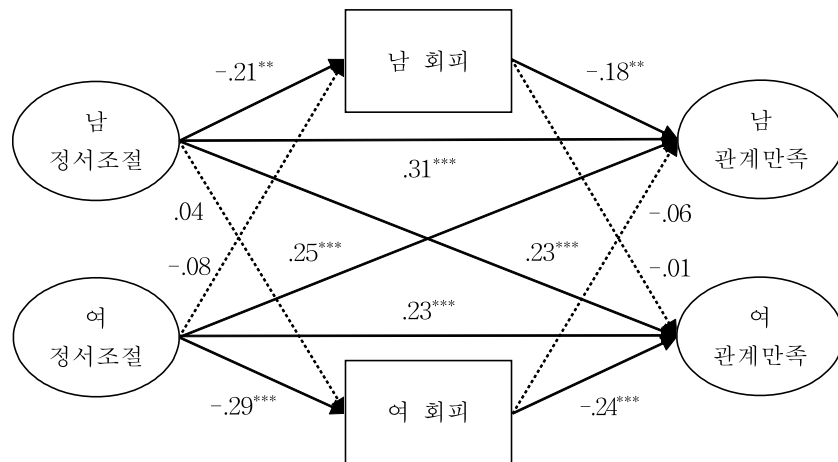


그림 3. 회피 구조 모형

주. * $p<.05$, ** $p<.01$, ***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표 6. 회피 모형의 간접 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신뢰구간)	
남 정서조절	→	남 회피	→	남 관계만족	.03(.01~.07)**
여 정서조절	→	여 회피	→	여 관계만족	.09(.04~.18)***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에 제시된 간접효과는 비표준화된 수치임.

조절과 남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남성의 회피가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3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여성의 정서조절과 여성의 관계 만족 사이에서 여성의 회피가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09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결과적으로, 회피 모형에서는 자기 효과에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고 상대방 효과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피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남성과 여성에 따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실시했다. (1) 남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회피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2)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회피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3) 회피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성과 여성의 자기효과 비교, (4) 회피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성과 여성의 상

대방효과 비교. 등가제약 결과를 표 7에 제시했다. 첫째, 남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회피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회피의 자기효과($\beta = -.24$)와 상대방효과($\beta = -.01$)를 비교한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아내의 경우 남성의 회피적인 대처보다 자신의 회피적인 대처가 관계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회피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남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각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개인의 정서조절과 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긍정적 공동 대처 방략인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부정적

표 7. 회피 기본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χ^2 차이 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 검증
기본 모형	275.692	130	.95	.926	.061	
등가제약 1	277.447	131	.949	.927	.061	$\chi^2(1)=1.755, p > .05$
등가제약 2	284.518	131	.947	.923	.063	$\chi^2(1)=8.826, p < .01$
등가제약 3	276.268	131	.95	.927	.061	$\chi^2(1)=0.576, p > .05$
등가제약 4	276.349	131	.95	.927	.061	$\chi^2(1)=0.657, p > .05$

공동대처 방략인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과 회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공동대처 방략인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 모형을 검증한 결과, 남녀 모두 자신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는 자신의 정서조절과 관계 만족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관계에서 남녀 모두 개인의 정서 조절 능력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통해 관계에서의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갈등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략으로 대처하고(Gottman & Krokoff, 1989; Papp & Witt, 2010), 긍정적인 대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면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최규련,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부나 연인이 공동으로 스트레스 및 갈등에 대처하는 것은 서로에게 정서적으로는 “우리(we-ness)”라는 유대감, 상호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는 관계를 보다 지지적이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각하게 하여 관계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Revenson, Kayser, & Bodenmann,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매개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자기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보다 남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상대의 관계 만족을 예측하는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나 동거 관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선행연구의 대상이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도와 관계 안정성이 높은 결혼한 부부나 동거 커플이기 때문에 연인관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다르게 상대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인 관계를 대상으로 한 공동대처 연구가 거의 없고, 국내에서는 연인관계는 물론 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동대처 연구도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부정적 공동대처 방략 중 하나인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모형에서 남녀 모두 자신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자신의 정서조절과 관계 만족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으면 관계 내에서 상대에게 표현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 역시 잘 조절하여 자신의 관계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모형에서는 다른 두 개의 공동대처 방략 모형과 달리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남성의 정서조절 능력이 좋을수록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Herzberg(2013)의 연구에서 남성의 개인적 정서 중심 대처가 여성의 정서 중심 공동대처를 매개로 여성의 관계 만족에 관련이 있었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여성이 상대방에게 애정을 더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어 자신의 관계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Herzberg(2013)의 연구 결과는 남성보다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여성의 관계 만족은 상대방의 영향을 더 많이 받

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Watson, Hubbard, & Wiese, 2000). Herzberg(2013)은 남성의 개인적인 대처에 대한 여성의 지각이 여성의 공동대처와 관계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여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지각보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여성의 지각이 여성 관계 만족과 더 강하게 관련이 있었다(Huston & Vangelisti, 1991). 또한, 남성과 여성의 정서조절 능력은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는 곧 남성 및 여성 모두의 관계 만족을 부적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공동대처 전략과는 달리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여성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뿐 아니라 상대 남성의 정서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받고 결국 이는 여성 자신뿐 아니라 남성의 관계 만족에도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각뿐만 아니라 여성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의 수준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김나리(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에 대해 여성이 갈등 상황에서 더 요구적이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갈등 해결에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 조차도 남성보다 더 많이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여성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잘 맞추며 남성보다 더 명시적으로 감정을 표현했고(Melendez, Mayordomo, Sancho, & Tomas, 2012) 긍정적인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남성보다 더 잘 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정주, 김정모, 2008; Brody, 1999; Lennon & Eisenberg,

1987). 비슷한 맥락에서 이성교제 중인 미혼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율성과 갈등 대처, 관계 만족도를 살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갈등 상황에서 행동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했다(Knee, Lonsbary, Canevello, & Patrick, 20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여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만약 상대 남성이 그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거나 여성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그러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여과 없이 표출할 때 여성 자신은 물론 상대방 남성의 관계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회피 모형을 검증한 결과, 남녀 모두 자신의 회피적 대처는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과 관계 만족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 관계에서 남녀 모두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할 경우 바로 관계에서의 낮은 만족감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정서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관계에서 생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관계에서의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회피의 역기능적인 기능에 대해 강조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최규련, 1995;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Alberts & Driscoll, 1992; Rands, Levinger, & Mellinger, 1981). 예를 들면, 결혼 관계를 대상으로 한 Rands 등(1981)의 연구에서 관계 만족은 관계에서의 갈등을 타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을 확대시키거나 오히려 회피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회피적 대처는 결혼 만족 및 결혼 안정성과 부

적인 관계가 있었다(최규련, 1995; 황지인 외, 2014). 하지만 회피적인 갈등 대처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남성의 회피는 여성의 관계만족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Kane et al., 2007)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회피적인 갈등의 매개 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상대방 효과가 아닌 자기 효과만이 유의했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아내보다는 남편이 갈등상황에서 회피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며 남편의 회피는 남편의 결혼불만족뿐 아니라 아내의 결혼불만족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Heavey et al., 1993). 이는 기존 연구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더 오랜 시간동안 상호작용해야 하는 결혼관계에서의 회피적인 대처는 상대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있어(Bouchard, Sabourin, Lussier, Wright, & Richer, 1998)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존재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의 이용이 보다 자유로운 연인관계에서의 회피는 부부관계에서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부부관계보다 더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

넷째, 관계 만족에 대한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와 회피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의 성차 검증에서 유의한 결과를 발견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여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가 남성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과 달리 남녀 모두 상대방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보다 자신의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가 자신의 관계 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적극적 문제 해결 시도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개념으로 측정했다. 즉, 관계를 방해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없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남녀 모두의 관계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관계 만족에는 남성의 회피적인 대처보다 여성 자신의 회피적인 대처가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회피가 여성의 관계 만족을 부적으로 예측함을 증명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아마도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Tamres et al., 2002; Thompson & Walker, 1989) 여성의 회피가 남성의 회피보다 여성 자신의 관계만족에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표출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이 연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남녀 모두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는 자신의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맥상통하게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의 표출은 관계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관여해야 한다고 사회화된 여성은 상대방의 회피적인 모습보다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과 반대되는 자신의 회피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의 관계 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의 학술적 의의와 상담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관계에서의 공동대처를 통해 이성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첫 연구로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개인적 수준 그리고 커플 공동수준에서의 대처가 관계 만족에 갖는 예측력을 검증한 의의가 있다. 대인관계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은 부모 자녀 관계, 또래 관계, 결혼 관계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반면, 결혼 전 이성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직접적인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탐색한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개인의 정서조절 수준이 연인 관계에서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PIM을 통해 남녀의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만족과도 관련이 있고 개인의 성공적인 정서조절은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며 이는 곧 서로에 대한 만족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스러운 연인관계를 위해 Bodenmann(2005)의 공동대처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 수준에서 먼저 조절이 되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된 상태에서 연인 간 보다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들에게 갈등 상황에서의 개인의 정서조절 실패가 연인관계에서 서로가 관계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대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내

담자들이 일상의 스트레스 혹은 관계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먼저 스스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보도록 하고 스스로 조절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 상대를 회피하거나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표출하기보다 서로에게 필요한 공동의 건설적인 조절 전략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은 내담자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여과 없이 드러낼 때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이후 관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상담자들은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내담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개인의 정서 조절 및 공동대처 전략을 마련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공동대처가 정서조절과 관계 만족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 하지만 Bodenman 등(2006)과 Papp와 Witt(2010)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 및 이성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보다 관계에서의 공동대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는 중단 연구가 아닌 한 시점에서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공동대처보다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더 중요한 결과를 보였을 수 있다. 또한 Papp와 Witt(2010)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공동대처를 자기보고로 측정했다. 자기보고를 통한 측정은 자신의 긍정 그리고 부정적 공동대처 전략에 대해 축소 혹은 확대 보고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동대처를 실험실 관찰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개인의 자기조절과

관계 만족과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동대처 영역을 연인관계에서의 갈등으로 한정지은 한계가 있다. 연인의 공동대처 방략을 연구하는데 있어 연인관계에서의 갈등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연인관계에서 서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Bodenmann, 2000; 2005).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연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한 연인은 상대가 겪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떠한 공동대처 방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 공동대처, 관계 만족 간 분명한 선행 관계에 관한 탐색이 필요하다. 관계에서의 헌신과 협력적인 공동대처의 관계를 관계 만족이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연구(Landis et al., 2014)에서는 남녀 자신의 헌신이 관계 만족을 통해 공동대처에 미치는 경로와 함께 남녀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계에서의 공동대처가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뿐 아니라 관계 헌신이나 만족도가 공동대처에 영향을 주는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정서조절이 관계의 공동대처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대처가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혹은 종단 연구를 통한 탐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

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초록, 신희천 (2011).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대처의 종단적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51-469.

백상은, 설경옥 (2015). 미혼 남녀의 성인 애착과 관계 만족: 주는 감사와 받는 감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51-381.

우현주, 유계숙 (2013).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 공동대처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51-71.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다차원적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0-261, 8월 23-24일. 경주 대명 콘도(경주 보문단지).

최규련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황여주 (2013). 미혼 남녀의 정서조절과 이성관

- 계만족도 관계에서 갈등대처방략의 매개효과와 갈등빈도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36, 381-405.
- Acitelli, L. K., Rogers, S., & Knee, C. R. (1999). The role of identity in the link between relationship think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5), 591-618.
- Alberts, J. K., & Driscoll, G. (1992). Containment versus escalation: The trajectory of couples' conversational complaint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6, 394-41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ellano, C. M., & Markman, H. J. (1995). Th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 (MADS):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conflict management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3), 319-334.
-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odenmann, G. (2000). *Stress and Coping bei Paaren* [Stress and coping in couples]. Göttingen, Germany: Hogrefe.
- Bodenmann, G. (2005). Dyadic coping and its significance for marital functioning. In T. A. Revenson, K. Kayser & G. Bodenmann(Eds.), *Couples coping with stress: Emerging perspectives on dyadic coping* (pp. 33-49).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denmann, G., Pihet, S., & Kayser, K.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dyadic coping and marital quality: A 2-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3), 485-493.
- Bouchard, G., Sabourin, S., Lussier, Y., Wright, J., & Richer, C. (1998). Predictive validity of coping strategies on marital satisfactio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1), 112-131.
- Brody, L. R. (1999). *Gender, emotion and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ng, C. C. (2010). A study of inter-cultural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4), 354-362.
- Compas, B. E., Jaser, S. S., Dunbar, J. P., Watson, K. H., Bettis, A. H., Gruhn, M. A., & Williams, E. K. (2014).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Point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6, 71-81.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ominian, J. (1995). *Marriage: The Definitive Guide to what makes a Marriage Work*. London: Heinemann.
- Fitness, J.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y press.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4). Coping: Pitfalls and promi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745-774.
- Furman, W., & Shaffer, L. (2003). The role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P. Florsheim(E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 and sexual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pp. 3-22).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oodman, C. C. (1999). Reciprocity of social support in long-term marriage.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5*(4), 341-357.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1), 41-54.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erzberg, P. Y. (2013). Coping in relationships: the interplay between individual and dyadic coping and their effect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xiety, Stress, & Coping, 2*(2), 136-153.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uston, T. L., & Vangelisti, A. L. (1991). Socioemotional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ital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721-733.
- Kane, H. S., Jaremka, L. M., Guichard, A. C., Ford, M. B., Collins, N. L., & Feeney, B. C. (2007). Feeling supported and feeling satisfied: How one partner's attachment style predicts the other partner's relationship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4), 535-555.
- Knee, C. R., Lonsbary, C., Canevello, A., & Patrick, H. (2005). Self-determination and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997-1009.
- Landis, M., Bodenmann, G., Bradbury, T. N., Brandstatter, V., Peter-Wight, M., Backes, S., Sutter-Stickel, D., & Nussbeck, F. W. (2014). Commitment and dyadic coping in long-term relationships. *GeroPsych, 27*(4), 139-14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dermann, T., Macho, S., &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8(4), 595-612.
- Lennon, R., & Eisenberg, N. (1987).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empathy and sy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195-21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pes, P. N., Nezlek, J. B., Extremera, N., Hertel, J., Fernandez-Berrocal, P., Schutz, A., & Salovey, P. (2011). Emotion regulation and the quality of social interaction: Does the ability to evaluate emotional situations and identify effective response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79(2), 429-467.
- Lopez, F. G., & Rice, K. G. (2006).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62-371.
- Melendez, J. C., Mayordomo, T., Sancho, P., & Tomas, J. M. (2012). Coping strategies: Gender differences and development throughout life span.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5(3), 1089-1098.
- Papp, L. M., & Witt N. L. (2010). Romantic partners'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and dyadic coping: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s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5), 551-559.
- Paul, Y., & Sherilyn, M. (2003). An examination of couple's difficulties with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3(1), 41-62.
- Petrides, K. V., & Furnham, A. (2003).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Behavioural validation in two studies of emotion recognition and reactivity to mood induc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1), 39-57.
- Randall, A. K., & Bodenmann, G. (2009). The role of stress on close relationships and marital satisfa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2), 105-115.
- Rands, M., Levinger, G., & Mellinger, G. D. (1981). Patterns of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3), 297-321.
- Revenson, T. A., Kayser, K., & Bodenmann, G. (2005). *Couples coping with stress: Emerging perspectives on dyadic coping*.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sbult, C. E., Martz, J. M., & Agnew, C. R. (1998).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5(4), 357-391.
- Russell, V. M., Baker, L. R., & McNulty, J. K. (2013). Attachment insecurity and infidelity in marriage: Do studies of dating relationships really inform us about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2), 242-25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iota, M. N., Campos, B., Keltner, D., & Hertenstein, M. J. (2004). Positive emotion and the regu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 Philippot & R. S. Feldman(Eds.), *The regulation of emotion* (pp. 127-155). Mahwah, NJ, US: Lawrence

-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Tamres, L. K., Janicki, D., & Helgeson, V. S. (2002). Sex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and an examination of relative co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 2-30.
- Thompson, L., & Walker, A. J.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4), 845-871.
- Watson, D., Hubbard, B., & Wiese, D. (2000). General traits of personality and affectivity as predictors of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elf- and partner-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68*, 413-449.
- Wei, M., Vogel, D. L., Ku, T.,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Zambianchi, M., & Bitti, P. E. R. (2014). The role of proactive coping strategies, time perspective, perceived efficacy on affect regulation, divergent thinking and family communication in promoting social well-being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6*(2), 493-507.

원 고 접 수 일 : 2015. 09.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2. 09

게 재 결 정 일 : 2016. 03. 14

Dyadic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Dating Couples

Kyoung Ok Seol

Sang Eun Baek

Su Kyung Won

Yeo Ju Hw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a mediational role of dyadic coping between individual emotion regula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Two hundred ninety-eight heterosexual couples (M age=23.55)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uples rated emotion regulation, three forms of dyadic coping (i.e., Active Engagement, Hostility, and Avoida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re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s were tes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onal effects of three forms of dyadic coping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Active Engagement model the link between male and female partner's emotion regulation and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Active Engagement. Similar results were found in the Hostility and Avoidance models; however, in the Hostility model we found the partner effect. That is, male partner's emotion regulation predicted female partner's Hostility dyadic coping and female partner's Hostility dyadic coping in turn, predicted male partner's satisfaction.

Key words : emotion regulation, dyadic cop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South Korea,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s